

세계인권선언 제55주년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UN이 세계인권선언을 한 지 꼭 55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법무부가 주관해 오던 행사를 올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좀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 뜻은 훨씬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세계인권선언을 낭독해 주신 분 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적 폭력에 의해서 스스로 고통받거나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이런 저런 사유로 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인권을 침해당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수십년 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권선언을 낭독하셨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인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독재 투쟁을 했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가 고귀하기 때문

이라고 대답합니다. 민주주의하에서만 인권의 존엄과 가치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일단 민주주의한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권력이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웬 인권위원회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 전 대통령은 그때 비로소 인권이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생각하고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립했고, 오늘 이 같은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이유로 생존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인권은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요받지 않을 권리,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에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을 권리까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불의한 사회에서 힘 약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시대, 용기 있게 그 잘못을 말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싸워 왔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을 자유, 그것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나 봅니다. 조금 전에 박시환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소개됐습니다만, 아마 그분은 자유를 침해당해서가 아

나라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오늘에도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인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분들이 제게 어떤 호소 또는 불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비록 국가기관에 의해서 직접 자유를 침해받지 않더라도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권리 위에 군림하게 되는 문제,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섰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낙오해서 결과적으로 인격을 존경받으면서 품위 있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이와 같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구경만 하는 국가를 어떻게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제게 던지고 계십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과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낙오한 사람들이 시장 바깥으로 팽개쳐지지 않도록, 인간적 수준 그 이하로 밀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갈 책임이 국가에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권리를 정말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분들도 와 계십니다. 또 핏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불법체류자가 되어 불안에 떨고 실제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가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확보하며, 그 위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는 막중한 가치와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 오늘날 국제질서가 국가 단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국가도 모든 나라 국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질서 위에서 모순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용이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충돌했을 때 사회 안정에 관한 문제로 부닥쳐 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인권 중심의 국가적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권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적 합의를 넓혀서 사회적 공론으로 형성되면 정부도 그것을 되도록 폭넓게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외치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가 많지만, 다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기 전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먼저 나서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우리 사회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인권위원회가 하자는 대로 정부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 안에도 서로 충돌되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순들을 되도록이면 모순 없이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성숙한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판단에 있어 서로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

력하고, 그래도 끝내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투표나 표결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면서 시간을 두고 점차 조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이 부딪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당연한 현상이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고 수용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회도 대통령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비판하지만 때로는 많은 정책적 제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처지와 생각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보다 실천이 모자라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나 실천보다 우리 정부는 훨씬 더 모자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을 침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심어 주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도록 부단히 투쟁하고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빠뜨리고 싶지 않은 한 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를 만드실 때, 저도 “어지간히 됐는데 인권위원회 만들어서 뭘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이야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를 가졌던 것이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